현장수첩

양자 보내기는 이렇게…

윤 재 구
(중원종축 농장장)

우선 양자를 보낸다는 것은 없앨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양자 보내기를 글로 길게 쓸 만큼 양자 보내기를 많이 하는 농장은 성공적인 양돈을 못하는 농장이라 하겠다. 대체로 산자수가 많을 때는 웃으며, 적을 때는 씁쓸해 하며 양자 보내기를 한다. 유효 젖꼭지 수가 12개 이상이며, 분만하는 자돈의 생시체중이 고르고 분만모돈이 강건하여 분만후 모돈이 사료를 잘 먹고, 유즙 분비가 잘 되어 모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양자 보내기를 안할 수 있겠지만, 전체 분만 모돈의 85~90%가 12두 가량을 분만하고 10~15%가 10두 이하의 자돈을 분만하니 양자 보내기의 기술이 필요하겠다.

1. 원칙

첫째로, 양자 보내기는 생후 3일 이내에 단 1회의 양자 보내기로 끝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자 보내기로 주간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농장이라면 생후 1~2일에도 가능할 것이다.

두번째로, 설사하는 자돈은 양자 보내기를 하지 않는다. 설사하는 자돈을 양자 보냈을 때에는 설사를 하지 않는 자돈도 설사를 하게 되어 경제적 피해를 주므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세번째로, 작은 자돈은 본래의 모돈에 남겨 두고 강하고 큰 자돈을 양자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은 것 끼리 모아서 포유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만 포유 보조가 필요하겠다.

네번째로, 초산돈 포유두수를 8두 이상으로 하여 2, 3산차 이상에서도 10두 이상의 자돈을 잘 키울 수 있는 모돈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번째로, 양자 보내기를 하기 전 최소한 3~4회 포유로 개체별로 작은 돼지는 보조를 해주어 초유를 충분히 먹인 후 실시한다.

2. 방법

1) 산자수가 많을 경우

태어나는 자돈 모두 강하고 체중이 고르며, 모돈의 유즙 분비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10% 가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양자 보내기의 기술은 필요하다. 허약한 자돈이 문제일텐데 조금이라도 더 이 시기에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해줄 것이다. 산자수가 많을 경우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양자 보내기를 실시하되, 작은 자돈끼리 모아 포유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주간관리 시스템이 잘 되는 농장이라면 이 방법이 매우 유효하다.

2) 모돈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분만하던 모돈이 폐사했을

때는 다른 모돈에게 고루 나누어 분할 포유시키고 작은 자돈은 필히 인공적으로 젖을 짜내어 초유를 먹인다. 다른 모돈에도 양자를 보낼 수 없을 때는 생후 1주일 정도 된 자돈들을 이유시키는 모돈에게 양자보내고, 그 모돈에게 자돈 전부를 포유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좋다.

3) 포유 전 기간에 보내는 양자

양자란 포유기간 중 허약하게 자라는 자돈을 건강하게 만들어 이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주일 이상 된 자돈들 중 젖싸움에 밀려 위축된 개체를 반드시 양자를 보내야 할 것이다.

같은 크기의 건강한 자돈이 압사 내지 폐사되었다면, 그 자리에 양자 보내고 자돈의 상태에 따라 생후 2~3일 된 자돈 틈에 양자 보내기를 하여 건강한 자돈을 만들어야 한다.

4) 이유시 양자 보내기

위축된 자돈을 이유시키게 되면 성장지연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와 중간 도태가 많아지며 설사의 재발 가능성이 높고, 호흡기질병 감염 위험이 커져 농장의 전반적인 생산성에 저해요소가 되므로 마지막까지 유즙분비가 잘 되는 모돈을 골라 위축된 자돈들만을 모아 재포유시켜야 한다. 이때는 자돈 개체별로 영양제 및 대사촉진제를 보조로 주사하여 재포유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유체중이 5kg 이상 되면 이유시키되 2회까지 반복하여 재포유시켜서 불가능한 개체로 판단될 때는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계획적인 양자 보내기

모돈 300두 이상의 농장에서는 대체로 목요일날 이유시키고 월, 화요일날 종부시켜 금요일날 계획적으로 분만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분만이 가능한데, 건강하고 큰 자돈을 먼저 양자 보내면 자연히 작은 자돈끼리의 포유가 이루어지므로 양자 보내기가 용이해지고 그 결과도 양호하다.

6) 기타 양자 보낼 때의 유의점

양자 보내기를 하고 그 개체가 제대로 포유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양모 선택시는 비유능력, 유두배열 및 발달과 모돈의 성격을 파악하여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3. 결론

양돈의 특성은 한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성적 모두 향상시키기가 쉽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돼지에게 적합한 환경을 부여해 주는 시설과 건강하고 잘 생긴 후보모돈의 선발, 정확한 교배를 시키고 산차와 모돈 체평점에 따른 알맞은 사료 급여관리를 하여 고른 자돈을 분만시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필자는 우리 농장에서 '89년에서 '90년 사이에 현장근무를 하였는데, 모돈 두당 연간 23.4두 이상을 이유시켰다.

당시에 필자는 양돈에 첫발을 디뎠을 때고 양돈지식도 없었다. 다만 사장님과 직원들이 일체가 되어 연구하고 열심히 관리한 결과였다.

현재 한국의 평균 번식성적을 고려한다면 양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태어나는 자돈의 93% 이상을 포유시키고 그 포유자돈을 96%이상 이유시켜도 양돈선진국의 번식성적과 비교하여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최소한 30%의 차이가 남).

이러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만간호, 포유관리를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의 틈에 끼어서 성공양돈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